

신종 코로나에 사람 많은 곳 발길 '뚝'

편의점·마트·백화점 근무자도 마스크 착용

터미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엔 손세정제 비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늘면서 주말을 맞은 광주시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각종 매장에서 예방수칙을 알리는 한편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 다.

지난 1일 오후 2시 광주 서구의 한 극장 앞에는 20여명의 시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표를 끊고 있었다.

평소 주말 오후시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붐볐던 영화관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 탓인지 이날은 한가한 모습을 보였다.

표를 끊고 있는 시민들 중 상당수도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영화관 안에 있는 일부 매점은 문을 닫았다.

영화를 보고 나온 이모씨(35)는 "예매율 1위를 기록할래 공금해서 친구와 영화를 보러왔다"며 "영화관에는 우리 두사람을 포함해 5명만 있었다"고 말했다.

인근 식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앉아 곳곳에서 빈자리가 보였고, 평소라면 북적이는 키즈카페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의 한 키즈카페 사장은 "정확한 산정은 안해봤지만 코로

나바이러스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키즈카페를 찾는 아이와 부모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빨리 코로나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품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와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 역시 다수가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다운로드 마트를 찾은 시민 김모씨(4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 걱정이 되지만 반찬거리나 생활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에 왔다"며 "다만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고 손 세정제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했다. 또 매장 곳곳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기도 했다. 매장 곳곳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포스터가 내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트와 백화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편의점에서도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광주의 한 편의점 업주는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는 게 좋다는 본사의 지침이 있었다"며 "안전을 지키자는 생각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광주



1일 오후 2시쯤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영화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일 오후 3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다.

의 경우 아직 감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아직까지는 매출이 떨어지는 등 영향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편의점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광주의 한 편의점 업주는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는 게 좋다는 본사의 지침이 있었다"며 "안전을 지키자는 생각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터미널과 병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도 손 세정제가 비치됐다.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안내창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손 세정제가 놓여져 있다.

병원에도 출입구 등에 손 세정제를 비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하고 있다.

동구, 2020년 구민 정보화교실 운영

광주 동구가 주민들의 정보이용능력을 높이고 스마트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2020년 구민 정보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3월 개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이며 오전반(10~12시), 오후반(14~16시)으로 나눠 과정별 30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구청 내 정보화교육은 ▲컴퓨터·인터넷 '기초과정' ▲문서작성·엑셀·파워포인트 '심화과정' ▲스마트폰, SNS, 스위치(SWISH), 이미지·동영상 편집 '스마트과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서구, 마을활동가네트워크 정기총회 개최

광주 서구는 구청 중회의실에서 마을활동가네트워크(이하 마을넷) '이락(里樂)'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해 활동성과를 평가·공유하고 2020년 서구 마을넷의 운영계획을 논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회에는 18개 동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와 협업단체 등이 상호 교류하며, 마을공동체 발전과 마을활동가의 성장지원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서구 마을넷은 마을 주제토크와 이락 페스티벌,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 교차로에 진입하면 LED 표시등 번쩍

광주 남구 월산동과 주월동 관내에서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에 차량 진입 시 LED 불빛을 통해 위험 신호를 알리는 '교차로 알림이'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남구는 "노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월산동 덕림중앙길과 주월동 군분로 일원 교차로 2곳에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차로 알림이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차로 알림이 설치 사업은 월산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다. 이곳 주민들이 이 사업을 제안한 이유는 노인 인구 등 교통약자의 비중이 높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북구, 인공지능 도시 기반 구축계획 본격 추진

광주 북구는 '인공지능을 잘 아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인공지능 도시 기반 구축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전략에 발맞춘 이번 계획은 북구 첨단 3지구에 조성될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북구는 △인공지능 가치·분위기 확산 △인공지능 인재 양성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등 4대 목표와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3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공직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GIST 인공지능 대학원장 김종원 교수의 인공지능 특강이 진행되고, 4차 산업혁명 현장체험과 주민참여형 AI 과학프로그램 운영 등 인공지능의 가치와 분위기를 확산한다.

광산구, 장기방치 노후 간판 정비 나서

광주 광산구는 장기간 방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정비에 나선다.

정비를 위해 광산구는 2월 노후 간판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건물주 등의 정비 신청·접수도 받는다.

이렇게 파악된 간판 중 노후화 정도와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정비 대상을 확정하고, 5월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수조사와 함께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의 자진 철거도 유도한다. 주인 없는 것들은 건물주·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에 들어간다.

입형택 기자

광주농기센터 “콩·팥 정부보급종 신청하세요”

콩 4종·팥 1종...3월11일까지 접수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11일까지 농업인상담소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재배할 콩·팥 정부보급 종자를 신청받는다

정부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의 엄

격한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 검사규격에 합격한 우량 종자로, 관내 공급량은 3200kg이다.

신청 가능 품종은 총 5품종이다. 콩은 대원, 대찬, 태광, 풍산나물 등 4품종, 팥은 아라리팥 1품종이

다. 특히 대찬콩은 최근 개발된 기계화 적응성 품종으로 종실이 둥글고 겉모양이 좋으며 10a당 수량이 330kg에 달하는 다수확 품종이다. 공급가격은 5kg 단위 1포대 당 콩(소독·미소독)은 2만5510원, 팥(미소독)은 4만3860원이다.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능력는

종자감염 병해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작업을 실시한 후 파종해야 한다.

공급은 4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신청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이뤄진다.

농업인상담소가 없는 일부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급종 신청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는 도산동, 송정1동, 송정2동, 신창동, 신가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 2동, 운남동 등 11곳이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시책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끼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예로써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노사갈등조정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Media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를 위해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평균
2011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77배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